

파리 올림픽, 골프·태권도에서도 금맥 쫓아

여자 골프, 8년만 금메달 도전
태권도, 중주국 자존심 지킨다
이다빈 그랜드슬램에 도전장
육상 우상혁·김장우 활약 기대



지난달 27일(이하 한국시간) 공식적인 막을 올린 2024 파리 올림픽이 7일로 폐막을 맞았다.

한국 선수단은 6일까지 금메달 11개와 은메달 8개, 동메달 7개 등 26개의 메달을 수확한 가운데 골프와 태권도가 메달 레이스에 가세한다.

골프에서는 고진영(솔레이)과 김효주(롯데), 양희영(키움증권)이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박인비에 이어 8년만의 금메달을 노린다. 고진영과 김효주, 양희영은 7일 프랑스 파리 골프 나시오날에서 스트로크 플레이 첫 라운드를 시작으로 10일까지 총 4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한국 선수단 중에는 고진영이 가장 먼저 티오프를 한다. 고진영은 오후 4시55분에 넬리 코다(미국), 인뤼닝(중국)과 함께 1라운드에 돌입한다.

이어 김효주가 오후 5시11분에 브룩 헨더슨(캐나다), 시유린(중국)과 함께 티오프하고 양희영은 오후 6시55분에 쉐린 부티에(프랑스), 릴리아 부(미국)와 조



한국 골프 국가대표팀 고진영(왼쪽부터)과 양희영, 김효주가 지난 4일 프랑스 기양쿠르 골프 나시오날에서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뉴스시

를 이뤄 경기를 시작한다.

유력한 금메달 후보는 세계 랭킹 4위(5일 기준)에 올라 있는 고진영이다. 미국 여자 프로 골프(LPGA) 통산 15승을 거둔 고진영은 올해 아직 우승이 없지만 지난 6월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에서 공동 2위에 오르며 감각을 조율했다. 지난 2020 도쿄 올림픽에서는 공동 9위를 기록한 바 있다.

전통적인 효자 종목이었던 태권도도 일정이 시작된다. 가장 먼저 박태준(경희대)이 같은 날 오후 5시10분 프랑스 파리

그랑 팔레에서 요한드리 그라나도(베네수엘라)와 남자 -58kg 16강을 치른다.

이어 김유진(울산시체육회)이 오는 8일 오후 4시33분 하티제 퀴브라 일권(튀르키예)과 여자 -57kg 16강, 서건우(한국체대)가 오는 9일 오후 4시21분 호아킨 처칠 마르티네스(칠레)와 남자 -80kg 16강을 소화한다.

한국 태권도 마지막 주자로 나서는 이다빈(서울특별시청)은 오는 10일 오후 5시47분 페트라 스톨보바(체코)와 여자 +67kg 16강에 나서 피날레를 장식한다.

2020 도쿄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이



한국 태권도 국가대표팀 박태준(왼쪽부터)과 서건우, 김유진, 이다빈이 지난달 25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태권도 미디어데이에서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

뉴스시

다빈은 이번 대회에서 그랜드슬램에 도전한다. 세계선수권대회와 아시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을 차례로 제패한 이다빈은 이번 대회를 통해 세계 4대 대회를 모두 정복하겠다는 각오다.

육상에서도 깜짝 메달을 노리고 있다. 먼저 우상혁(용인시청)이 7일 오후 5시5분 프랑스 파리 스타드 프랑스에서 열리는 육상 남자 높이뛰기 예선에 출전한다.

우상혁은 상위 12명에게 주어지는 결승 티켓을 노린다. 우상혁은 지난 2020 도쿄 올림픽 예선에서 2m28로 예선을 통

과한 뒤 결승에서는 2m35로 한국 신기록을 경신했으나 4위로 아쉽게 메달을 놓쳤다. 하지만 육상 트랙 및 필드 종목에서 4위의 성적을 거둔 것은 한국 선수단 사상 최초였다.

이어 곡성에서 태어나 육과초-전남체중-전남체고를 나온 김장우(국군체육부대)가 8일 오전 2시15분 육상 남자 세단뛰기 예선에 나선다. 김장우는 파리 올림픽 출전권이 주어지는 기준 기록(17m22)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랭킹 포인트 32위에 오르며 적극적으로 출전권을 얻었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우승 승부수’ KIA, 새 외인 에릭 라우어 영입

메이저리그서 선발로 112경기
크로우·알드레드와 동시 결별



KIA타이거즈가 올 시즌 우승 도전을 위한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다. 미국 메이저리그

(MLB)에서 여섯 시즌을 선발 투수로 활약한 에릭 라우어(Eric Lauer·사진)를 영입하며 마운드를 강화했다.

KIA는 에릭 라우어와 계약금 5만달러와 연봉 30만달러 등 총액 35만달러에 계약을 맺었다고 6일 밝혔다. 라우어는 지난 1일 마이너리그 트리플A 슈거랜드 스페이스 카우보이스(휴스턴 애스트로스 산하)로부터 방출된 바 있다.

미국 오하이오 엘리리아 출신으로 190cm, 94kg의 체격을 지닌 라우어는 메이저리그에서 여섯 시즌 동안 선발로 112경기를 소화한 확실한 자원이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밀워키 브루어스에 몸담으며 120경기에서 36승 37패 2홀드, 평균자책점 4.30의 성적을 남겼다.

특히 메이저리그에서 여섯 시즌 중 다섯 시즌을 풀타임 선발 로테이션을 소화한 경험이 있고, 밀워키 소속이던 2022년에는 11승 7패로 두 자릿수 승리를 기록하는 등 위력을 떨쳤다.

라우어는 방출 직전까지 마이너리그에서 선발 로테이션을 소화해 KIA 합류 직후 등판이 가능할 전망이다. 마이너리그에서는 여섯 시즌 동안 70경기(선발 63경기)에서 16승 19패, 평균자책점 3.77을 기록했다.

마이너리그 최상위인 트리플A에서는 네 시즌 동안 36경기(선발 30경기)에서 9승 10패, 평균자책점 4.64를 기록했고



올 시즌에는 19경기(선발 16경기)에서 75.1이닝을 소화하며 4승 5패, 평균자책점 5.26의 성적을 거뒀다.

라우어는 경력이 풍부한 만큼 뛰어난 경기 운영 능력을 지녔다.

커브와 슬라이더, 체인지업 등 다양한 구종을 갖췄고 신장에서 비롯되는 최고 시속 151km의 빠른 공과 낙차 큰 커브가 위력적이다.

라우어는 지난 5일 오후 이미 입국한 상태다. 입국 직전까지 등판을 이어왔던 만큼 6일 오후 메디컬 체크 등 마지막 입단 절차를 마무리 지은 뒤 곧바로 실전 등판을 준비할 전망이다.

한편 KIA는 지난 5일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월 크로우와 캡 알드레드의 웨이버 공시를 신청했다.

크로우는 지난 5월 오른쪽 팔꿈치 내측 측부 인대 손상 진단을 받은 뒤 재건술을 받았다. 크로우는 대체 선수로 합류한 알드레드는 9경기에서 3승 2패, 평균자책점 4.53의 성적을 기록했으나 KIA 유니폼을 벗게 됐다.

한규빈 기자



제50회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 레슬링대회에서 선전을 펼친 전남체육중·고 레슬링 선수들.

전남체육회 제공

전남 레슬링,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 레슬링대회서 메달 잔치

금 7·은 5·동 13개

전남 레슬링 선수들이 ‘제50회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 레슬링대회’에서 메달 잔치를 벌였다.

6일 전남도체육회와 전남레슬링협회에 따르면 전남 레슬링 선수들이 최근 강원 양구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7개, 은메달 5개, 동메달 13개를 획득했다.

여자일반부 자유형 선수들은 금메달 3개를 수확하며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전남대표 전미란(삼성생명)이 여일반 -50kg급에서, 권영진(삼성생명)이 -59kg급에서, 장은실(전남체육회)이 -68kg급에서 각각 금메달을 따냈다.

고등부 자유형과 그레코로만형 선수들은 금 4·은 3·동 7개를 획득했다.

전남체고 자유형 -65kg의 채진호(1년)와 자유형 -74kg의 이윤수(3년), 그레코로만형 -82kg의 김동준(2년), 그레코로만형 -55kg의 이승현(2년)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남체고 그레코로만형 -82kg의 김예찬(1년), 그레코로만형 -97kg의 이다훈(1년), 학다리고 그레코로만형 -130kg의 박민준(2년)이 은메달을 각각 따냈다.

전남체고 자유형 -79kg의 김예찬(1년), -92kg의 이다훈(1년), -97kg의 허현찬(3년), -97kg의 박태운(1년), 그레코로만형 -60kg의 송현승(2년), -77kg의 이윤수(3년), 학다리고 자유형 -125kg의 박민준(2년)은 동메달을 차지했다.

남자일반부 자유형 -92kg 이재성(전남체육회)은 은메달을, 자유형 -97kg 장동혁과 그레코로만형 -130kg의 진성빈(전남체육회)은 각각 동메달을 수확했다.

중등부에서는 은 1·동 5개를 획득했다. 전남체중 이현균(3년)이 그레코로만형 -60kg 은메달과 자유형 60kg 동메달을 차지했다. 전남체중 자유형 -60kg 오승우(3년), -97kg 박수환(3년)은 동메달을 거머쥐었다. 전남체중 김정민(2년)은 자유형 -71kg과 그레코로만형 -71kg에서 각각 동메달을 획득했다.

김화영 전남레슬링협회장은 “전남 선수들이 종합우승이라는 좋은 소식을 가져다줘 매우 기쁘다”며 “오는 10월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